

차세대 섬유 세미나 7월7일 개최

신소재 섬유의 미래 가늠 ... 섬유공학회·섬유산업연합회 공동주최

한국섬유공학회의 2005 하계 세미나가 7월7일-9일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차세대 섬유소재 전망> 세미나는 정부의 산업용 섬유산업 발전 종합대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서 후원한다.

회의는 섬유산업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장으로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형 섬유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해 논의하고, 외국의 개발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섬유 하계세미나(2005) 주제발표 일정

구 분	주제발표	발표자	비 고
7월7일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윤수영	산자부 섬유패션산업과 과장
	미래형 섬유신소재	이대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해외 섬유소재 개발동향	손성군	디엔에프 대표
7월8일	글로벌 트렌드 소재기획	김정규	예지텍스 대표
	三元點心(삼원 점심)	임영호	코오롱제약 대표

자료) 한국섬유공학회

회의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추진하는 2001년 산업용 섬유산업 발전종합대책에 따른 나노섬유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의 나노섬유 기술개발 과제는 <2001년도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2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07/07>